

클래식 스타들, 학생들에 노하우 전하다

광주시향 '마스터 클래스' 첫 선 시향 협연자 강사로 나서 레슨 클래식 애호가들도 참관 가능 26일 조인혁·10월 백주영 강연



지난 8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열린 '2021 광주시향 마스터 클래스'에서 강사로 나선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향 제공>

'클래식 스타의 연주기술과 철학, 내공,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지난 8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클래식 스타의 강의를 1대 1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이하 광주시향)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21 마스터 클래스'가 열린 것.

마스터 클래스는 광주·전남 지역 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연주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광주시향과 협연 무대를 선보이는 연주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레슨을 해주는 시간이다.

광주에서는 유명한 연주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광주를 찾은 연주자들의 무대를 그 공연장에서 보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전공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참관할 수 있어 클래식 팬들에게는 연주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첫 강연자로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나섰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에 협연자로 오른 손 씨는 20세 나이로 2011년 게오르기 에네스쿠 콩쿠르에 우승했고 제네바 음악콩쿠르, 발티돈 콩쿠르 등 세계적 국제 경연에 입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모차르트 고전주의부터 차이콥스키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독창적 해석과 다양한 색깔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연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는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들과 학부모, 일반인 등 약 25명이 참여했다.



조인혁

백주영

광주시향은 지난 3월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레슨 접수(3명)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참관 접수(20명)를 진행했다. 전공생들은 접수할 때 1년 이내 촬영된 10분 내외의 연주영상을 함께 첨부했고, 이 동영상 오디오션을 거쳐 선발된 연주자 3명은 그에게 30분간 개인 레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손 씨는 이날 멘델스존의 '엄격 변주곡', 리스트의 '스페인 랩소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세 곡에 대해 강연했는데, 레슨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를 보인 건 강연 후 광주시향 김성수 운영실장의 사

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이었다. 이날 참관 온 시민들은 '체계적인 피아노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해야 하는지'부터 무대공포증 극복하는 법, 독주와 협연의 차이점 등에 대해 스펀지 없이 질문했고, 손 씨 역시 친근한 모습으로 연주자 인생을 살아갈 후배들에게 마음가짐, 가치관, 예술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 다음 강연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이 강사로 나선다. GSO 오티움 콘서트 '로맨틱 프라하' (27일)를 위해 광주를 찾는 그는 이날 4명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브람스 '클라리넷 소나타 1번', 바시 '리굴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 스포어 '클라리넷 협주곡 2번',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밖에도 10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강연하며, 11월에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참가신청은 광주시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62-524-5086.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뉴욕어들은 악명 높은 땅값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산다. 그럼에도 뉴욕은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는 도시다. 집 밖으로 나오면 1km 간격으로 센트럴파크 같은 크고 작은 공원이 많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이다."

지난해 7월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제8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건축가 유현준(홍익대 교수)씨는 쾌적한 도시로 맨하튼을 꼽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수천만 명이 밀집해 있는 이 곳을 주목한 것은 '소비'할 수 있

원에서 일상을 보내는 건 모든 이의 로망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는 어떤가. 스케일면에서는 이들 도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광주의 도심에도 남부럽지 않은 금남공원, 광주공원, 사직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사직공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외국의 도심공원들처럼 시민들이 편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굿모닝! 광주사직공원

는 문화공간들이 많아져서다.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밖으로 나오면 공원, 광장, 미술관, 도서관이 도시 곳곳에 싹싹 돋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런던, 파리, 뉴욕은 공통점이 있다. 화려한 건축미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뽐내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의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원이 그것이다.

맨하튼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브라이언트 파크를 들여다 보자. 센트럴파크 보다 규모는 작지만 맨해튼 42번가에 자리한 장소성과 다양한 콘텐츠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즌별 페스티벌은 브라이언트 파크의 자랑거리다. 매년 6~8월 추억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갈라 페스티벌, 클래식 썸머 페스티벌은 '한 여름 밤의 꿈'을 안겨준다. 특별한 입장권이 없어도 슬리퍼를 끌고 간단한 먹거리와 돛자리를 챙겨 공

물론 사직공원에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숨쉬고 있다. 지난 1924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한때 어린시절 최고의 나들이 장소였던 동물원을 비롯해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 42종의 나무, 관덕정(황터), '빈집'(폴리), 통기타 거리 등 매력적인 공간이 많다. 특히 광주 도심과 양림동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은 올해 하반기 완공되는 AMT(미디어아트 플랫폼)와 2023년 건립되는 사직공원 야외 공연장을 잇는 '컬처브릿지'로서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구슬이 많더라도 꿰어야 보배일 터.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제95차 정책토론회 '사직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는 논의의 첫장(場)이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의 방치된 공간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예술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공원은 한 도시의 삶의 질과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 위해 헌신 김교신 선생 삶 조명

김영태 교수 '...김교신 선생' 펴내

일제강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김교신 선생(1901-1945)의 삶과 종교사상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김영태 전남대 윤리학과 명예교수가 펴낸 '일제강점기 조선민중의 선구자 김교신 선생' (전남대출판부)은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교신의 애국적·종교적, 숭고한 신앙의 삶을 담았다.

저자에 따르면 김교신은 한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살신성인의 무명초 같은 인물이다. 특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새로운 종교, 즉 무교회적 성서 연구를 통해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기독교를 만나 유교신앙에서 무교회 신앙으로 회심해 새로운 영적 순례를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의 스승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영향이 컸다. 우치무라 간조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으며 그로 인

해 당시 도쿄 조선인 유학생들 가운데는 그의 제자가 많았다고 한다.

함석헌, 정성훈, 송두용, 유석동, 양인성 등이 있었다. 이들은 '조선성서연구회'를 결성해 진리탐구에 매진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실력을 배양했다.

특히 김교신은 귀국 후 교편을 잡고 후학을 양성했으며 '성서조선'이라는 월간 신앙지를 제작 배포해 예수가 행했던 3개 분야 사역(선교, 교육, 치유)에 역점을 두고 아가페 정신을 발휘했다.

저자는 "김교신 선생의 삶을 통해 혼돈적인 우리 사회의 상황이 질서적 상황을 향해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 목요국악한마당 무대

15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가 오는 1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창단한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는 한승철 대표 외 4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창작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앞날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 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날 공연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북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가무악 무대로 꾸며진다.

흥겨운 '사물놀이'로 시작해 나쁜 액을 물리치는 '살풀이춤', 신명의 미학을 담은 '12계 장구춤' 등을 선보인다. 이어 설장구 연주, 승무, 진도



굴렁쇠 공연 장면.

북춤 등도 무대에 올린다.

관람 희망자는 거리두기 좌석제 운영에 따라 선착순 50여명 입장할 수 있다.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p> <p>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p> <p>☎ 061)332-6108</p>	<p>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p> <p>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p> <p>☎ 062)523-5885, 010-5665-0150</p>	<p>평강안마지압원</p>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p> <p>☎ 062)527-6664, 010-2645-6664</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주)K&J컴퍼니</p> <p>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 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p> <p>☎ 1899-1972</p>	<p>효원재가복지센터</p> <p>광주 북구 운암동 91-2, 벽산블루밍 307동 앞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같은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 신체, 인지, 정서활동,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함께 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집합니다</p> <p>☎ 062)449-8627, 010-8627-5604</p>	<p>써니헤어샵가발</p> <p>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평 전문</p> <p>전화예약 ☎ 010-3996-0489</p>	<p>대신청소전문기업</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p> <p>☎ 062)526-1133, 010-6522-1524</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물리다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새희망 직업소개소</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행사모집</p> <p>☎ 062)531-5511, 010-6522-1524</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국수나무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드림케어슬루션</p> <p>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p> <p>☎ 010-3118-5679</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